

여호와께서 기뻐 아니하시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우리가 소경같이 답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꿈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데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 이사야 59:9-21]

지 난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 해 전에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으니까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뭘 걱정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작권 환수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십니까? 아니면 **FTA**요? 헌법재판소 소장 문제로 고민을 좀 하십니까?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게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 하나만 걱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걱정해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파업하시는 분들도 잘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제 역할을 해 나갈 텐데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찌다보니 요즘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내 큰 길에 나가 보세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다가 30, 40년 후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아직도 많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몇 십 년 지나면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옛날, 이사야는 망해 가는 조국을 보면서 고심하고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암담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안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생각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 아냐? 혹시 손이 짧은 것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손, 너희 입, 너희 발에 온통 땀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참담한 현실이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기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앞날이 참담해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힘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으면 정부를 뒤집어 보시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좀 갈아 보시렵니까? 국회가 하는 일을 보면 저런 국

회의원을 내가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저들을 바꿔치기 할 수 없을까요? 짜증은 나고 성질은 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번 선거 때 잘 찍어야지? 잘 찍는다고 해도 그분이 그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59장 3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던 이사야가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움 뿐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3절에서 너희 손, 너희 손가락, 너희 입, 너희 발에 피가 묻어서 냄새가 난다고 책망을 하던 선지자가 9절에서는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무슨 애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던 선지자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백을 시작합니다.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너희가 라고 책망하던 선지자가 갑자기 '우리가' 이릅니다.

이 말씀은 탄식이나 절망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13절, 14절로 넘어가 보면 기도로 이어집니다.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서 선지자는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너희 손이, 너희 입이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책망하던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지자가 뭘 하겠어요?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여러분, 혹시 소경같이 담을 더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하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읍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해가 있을 때 읍내에 잠시 나갔다가 어두워져서 돌아오는데 가로등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름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 마을로 가는 길일거야' 하고 꺾었더니 담벼락에 부딪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벽이 안 보여요. 군대 갔다 온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대 훈련 중에는 야간 정숙 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들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쪽 내밀어서 안 부딪치면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걷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읍내에 나갈 때 음력날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소경같이 더듬었던 경험인데 정말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겁니다.

10절 끝에,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불행 중의 불행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 혼자 못 살면 이거야 말로 진짜 불행입니다. 다 같이 배가 고프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배고프면 이거 정말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대원에서 저 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 한 열 명이 자주 모였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씀 하나가 "빨리 졸업해야죠. 정상으로 다 졸업해야죠." 입니다. 다 가고 혼자 남아 있어 보세요. 혼자 낙제를 하거나 점수가 모자라서 남아 있다고 쳐 보세요 한 학기를 더 하든 한 학년을 더 하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임태하여 발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탄식이나 절망이나 비명이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것은 악의 소굴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면 가만 두지 않

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이기적인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행한 처지를 당하고 말았지만 선지자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희망이 싹 터 옵니다.

가끔 남의 집 아이들, 아니면 남의 집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복도 많다'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 잠시 접어놓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살았으니 이렇게 복 받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찌면 저렇게 복도 많을까 이러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 가슴 아픈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뻐 아니하셨습니다. 이긴 참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될 하나님께서 기뻐 않으십니까?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워줄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고 아파해줄 만한 중재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못한 자식인데 저 자식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중재자가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중재자가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중재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6절 중간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중재자가 없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것을 간추린다면 '아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 냄새를 제거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데려가서 씻기든지 입에서 나는 냄새는 아빠가 데리고 치과에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 없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능력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홍수로 심판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다시는 매를 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안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때리면 씨도 안 남아 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안 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포기 비슷합니다.

자식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이제부터는 야단도 안 치고 매를 안 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겠느냐 말입니다. 매를 안 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포기는 안 되네요. 포기는 안 되고 매는 안 들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방법이 없으니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옵니다. 집 나간 아내를 몸 값을 주고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다시 데려옵니다. 개과천선했기에 데려옵니까? 아니요! 다른 남자와 눈 맞아 도망쳐 버린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는 호세아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노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었잖아?”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겁니다.

초신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네 입으로 믿노라고 말하고 네가 네 발로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네게 엄청난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고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까지 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17절,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을 삼으시고’ 갑옷과 투구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듯한 표현이고, 속옷과 겹옷은 보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원수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과 보복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무장을 하셔서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해롭게 한 무리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했던 자들을 보복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원수 노릇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비유입니다마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겹옷과 속옷을 입고 완전무장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은 곧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말하고 하나님의 대적에게만 일어나는 간단한 보복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죠? 섬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참 많이 나오는데 땅 끝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동방, 서방, 섬들까지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9절 뒤편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니라’ 하수는 큰 강물입니다. ‘큰 강물이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큰 강에 독이 있어서 강물이 막혀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어찌다 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때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동방에서 서방에서 저 섬들까지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몰려들어오는

것도 지켜보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계곡을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오실 것이니 누가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21절이 또 설명을 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네 후손의 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의 신과 또 나의 말입니다. 나의 신, 성령이죠? 나의 말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전에 다른 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을까 하고 꿈 열심히 꾸지 마세요. 전에도 우스개 삼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계시를 받으려면 많이 주무세요. 자기 전에 많이 잠수세요.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말고 뒤척뒤척 그러세요. 그럼 계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꿈, 환상 아니면 어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투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전해줬더니 그것은 안 보고 엉뚱한데서 매달린다?’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민되는 이런 저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성경구절이 떠오르면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평소에 들어있어야 어려울 때 떠오르죠? 입력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떠올라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의 입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치러 가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된 것이 점치는 집 앞에 ‘기독교인 환영’ 이런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이사야 59:21)’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 입이 이전에 어떤 입이 있었습니까?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입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향내가 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입에서 아주 깔끔한 향내가 풍겨져 나올 것이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56장에서 5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가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책망 받을만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돌아설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을 때는 책망을 해 봐야 고통스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본래 목적은 회복입니다.

실컷 책망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안 되니 내가 해야지 어떡해?” 이럴 때 부모들이 잘 쓰는 말이 뭐니까? ‘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 낳은 죄밖에 없지 않느냐?’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낳은 죄 몰라?’ 제가 할 말이 없대요. ‘아, 너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낳은 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가 ‘아, 참 하나님, 낳은 죄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얼마나 말 안 듣고 애를 먹이는지 모릅시다라는 그걸 다 참고 참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낡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더 심했죠. 왕정시대요? 제대로 된 왕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모든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옛날에만 그렇고 오늘날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사람을 바라보면 걱정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60장 1, 2, 3절이 앞의 장면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의 네 빛으로 열 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59장, 58장에서 책망 받고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